

굳 씬

1135. 강인한 영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굳쌔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혼 자신이 반석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견고한 바위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님과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전능합니다.

1136. 오직 한가지, 영원도록 하느님 안에 고정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확고하고 견고해 집니다. 아무 것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물들은 약하지만 무한히 굳센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탱하여 주시고, 그분 손 안에 있으면 모두가 견고한 바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1137. 저 신비스런 손 안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변치 않고 영원하며 절대적인 것에 점점 더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초월성의 증인입니다.

1138. "존재 자체이신 분"으로 살아갑시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 아무 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맙시다.
감각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 보면 지극히 통속적인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 신비의 심연에까지 다다릅시다. 우리 영

혼은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1139. 옆길로 새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 저기 두리번거리서는 안됩니다. 오로지 한 방향, 하느님의 방향만을 주시하십시오.

하느님... 하느님...!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어머니... 이들 안에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1140.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영웅적이며 사랑입니다. 모두가 당신의 평정과 사랑, 온유와 선함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기를...!

1141. 그분께 확신을 가지십시오. 칠흑 같이 어둡고 싸늘한 밤 중에도 아무 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이런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대는 사랑에 빠진 행진을 계속하십시오. 천상에서 이미 시작된 사랑의 찬가를 이 지상에서 연장 하십시오. 이는 절대적인 것을 향하는 진귀한 모험입니다. 이 모험에 매력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1142. 하느님의 위력은 성난 파도 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대의 삶은 하느님 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스쳐가는 것들은 단지 하느님께서 그대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1143. 그대 영혼이 결코 함락되지 않는 바위라면 좋겠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성난 파도에 시달려도, 하늘이 무겁게 내려 눌러도 언제나 침착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강하고, 굳세고, 용감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에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144. 우리는 지옥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대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세 원수(세속, 육신,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그대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1145. 모든 것이 허물어 질 것만 같아 보이는, 두렵고 지치게 만드는 회색 빛 어두운 날에는 그 어느때 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그 복된 문턱에서 항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거기서 밀쳐낼 수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성심을 바라보며, 즉 그분의 눈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내 영혼을 빼앗아간 그분 사랑의 풍요로움 안에 못 박힌 채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146. 정상은 오직 깨어지지 않는 기쁨과 꾸준함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산의 냉혹함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꾸준해야 합니다.

1147. 오, 나의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마치 깊은 숲 속에서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저를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 결코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 안에 저를 고정시켜 주십시오. 당신 우정, 당신 사랑의 신비 안에 영원토록 저

를 정착시켜 주십시오.

1148. 초대는 매일, 매일 이루어 집니다. 왜냐하면 성공 여부는,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 순간의 폭발적인 열정이나 어찌다가 생기는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 아닙니다. 문제는 항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그분을 찾는 일에 끝까지 항구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문턱에 다가가서 한 여름의 띄약별도, 한 겨울의 싸늘한 얼음장에도 끄떡하지 않고 고정된 채 항구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1149. 마치 바위 틈에 박힌 조개가 바위가 되어가는 것처럼 저의 삶을 하느님 안에 고정시켜 주소서.

성모님, 제 허무의 심연이 저 평화와 사랑의 영역 안에 사라지게 하소서.

1150.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길,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모험의 목표는 하느님이고 또 분명하고 확고한 걸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 갈 수 있으니 하느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1151. 이제 오직 한 가지,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두려움 없이 확고하게. 항상 기쁘게 앞으로 전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날개에 태워 가시도록 저항하지 않고 낙천주의와 사랑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1152. 지상의 것들은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동요되지 마십시오.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도하게 살아가십시오. 현세의 것들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1153. 그대의 삶이 거센 풍파 속에서도 끄덕 않는 굳센 기둥 같았으면 합니다. 성당 제단에 있는 돌 제대처럼, 감실을 떠받치고 있는 돌기둥처럼, 성모님이 딛고 계신 발판처럼 말입니다.

1154. 기쁨... 하느님의 즐거움... 그러나 견고한 기쁨, 굳센 의지에서 나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대의 즐거움과 기쁨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용감한 영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확고부동한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느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155. 평정을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절대 평화를 잃지 맙시다. 선으로 모든 것을 방어합시다. 선(善)은 생존이 달린 실존적인 문제를 방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고 용감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최상의 힘이며 선은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온유함과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감 합시다.

1156. 우리 생활에서 충실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것은

한결 같음과 꾸준함 입니다. 영원한 감각으로 하느님 안에 우리 삶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계획입니다.

1157. 기쁨, 평화, 평안함과 안정감을 전달해주는 변함 없는 고요함...! 결코 화를 내지도 걱정해 휘말리지도 않는 이 고요함은 이미 어느 정도 하느님의 불변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1158.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의 정배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적 격정에 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은 평화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평화로 살아야 합니다.

1159. 거센 파도 속에 꼼짝하지 않고 고요하고 도도하게 서있는 바위를 바라 보는 것만으로도 폭풍우 치는 바다는 참으로 장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삶으로 '건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의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이겠습니까!

1160. 제 눈을 당신께 고정시켜 주시고 제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니 당신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1161. 굳셈의 은사여! 저의 작음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의 "예"가 견고해지고, 고통 앞에 놀라지 않으며 허무하고 가난한 이 영혼 위에 매 순간 쏟아지는 사랑의 복된 요구들을 모

두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저는 당신의 힘이 필요 합니다.